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지로!

최용범 행정부지사, 식품산업 기업방문 현장행정 펼쳐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핵심산업인 식품산업 관계기관 및 기업을 찾아 전북 식품산업 발전에 위한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범 부지사는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준공을 마치고 현재 27개 입주기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임직원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을 비롯하여 센터 간부급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였고 도에서는 조호일 식품산업과장,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이 동행했다.

윤태진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단 내에 근무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편의점·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 신축과 2020년도 신규 국가사업인 가정간편식 지원센터(288억원), 청년식품창업허브(289억원) 사업에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최용범 부지사는 "전북도는 농생명·농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지난 5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최첨단 '글로벌 김치공장'을 준공하고 프리미엄 김치를 본격 생산하고 있는 '풀무원 김치공장'을 방문했다.

풀무원 김치공장은 포기김치부터 맛김치, 백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김치를 하루 30t, 연간 1만t을 생산할 예정으로 청정 전북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과 풀무원 제조기술이 만나 김치와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앵커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박범돈 공장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김치공장은 풀무원이 자체 브랜드 김치를 직접 생산하는 첫 공장"이라고 강조하며 "맛있고 품질 좋은 프리미엄급 김치를 생산하고 글로벌 No.1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글로벌시장에서 김치 중추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풀무원과 같

은 견실한 중견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미지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앵커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해 4월,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패키징센터와 협업을 통해 지역내 열악한 식품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호응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갑 센터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기업체의 디자인 지원, 신제품 업그레이드 필수 있도록 디자인센터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범 부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소통하고 상생협력하는 명품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은 허림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풀무원다는 등 식품기업의 대규모 투자 열기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기업들도 잇따라 준공하고 있어 식품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11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린 '수박 등 박과채소 현장 평가회'에서 담당자들이 속노랑수박, 속하얀수박 및 희귀 박과 유전자원 전시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관련기사 6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총력'

전북도, 글로벌 우수기업 5개사 선정... 미국 시장 집중 공략

전북도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도내 기업 5개사를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5개 기업을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우수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텍사스주립대 글로벌 사업화 그룹과 연계한 미국시장 기회분석 보

고서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마케팅을 지원한다. 글로벌 우수기업은 1차로 텍사스주립대학교와 KAIST 마케팅 전문가들의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글로벌 유망기업 10개사가 선정되었고, 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미국시장 기회분석보고서를 제공한데 이어 2회에 걸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2차 기업별 발표평가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2019년 글로벌 우수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5개사는 ▲(주)지엠에프 ▲(주)세메테크 ▲(주)티앤지 ▲(주)아임

▲(주)흥주를 이다. 2013년 8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년차인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총 55개사에게 미국시장 기회분석보고서를 제공했고, 28개사의 해외 현지마케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외 수출은 약 721만불의 성과를 올렸으며 글로벌 우수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해외마케팅 경험 축적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서 전북관광 적극홍보 추진

전북도(관광총괄과)는 12일부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전북관광을 홍보한다.

도는 아티스트 수영(Artistic Swimming) 종목이 열리는 광주 영주체육관 주변 마켓스트리트 홍보관에 전북도 홍보부스를 개설해 여행체협 1번지, 의료·생태관광 및 시·군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영주체육관 마켓스트리트 홍보관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그

리고 마스터즈대회 기간 중에는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7일간 전북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약 193개 나라 7266명이 등록하여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홍보 활동의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전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자연생태과·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보건의료과와 더불어 전주 시·진안군·장수군과 협연하여 생

태관광, 의료관광 등 테마별·지역별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여행체협 1번지로서의 전북관광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각 협연 부서 및 시·군별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홍보부스를 전담 운영하면서 테마별·지역별 관광상품을 집중홍보하여 세부관광상품의 홍보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전북관광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선수단에 배포해 참가 선수단 및 언론사 등에게 전북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 당부

전북도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 장마로 인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이른 더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발생한다.

전북도는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비누를 써서 30초 이상 손 씻기, 닭·수산물·육류 등을 씻을

때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먹는 채소·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 식품안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도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냉장·냉동 온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기반 다진다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도-워싱턴주 청소년 교류 추진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전북도와 미국 워싱턴주 청소년들 간의 양 지역 문화 및 언어 교류를 위해 15일까지 7박 8일간 '전북도-워싱턴주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워싱턴주는 1996년 전라북도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으로 2004년 자매결연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자매결연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도국제교류센터는 양 지역

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워싱턴주 청소년 전북 초청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도내 청소년 14명이 워싱턴주를 방문하는 등 상호 청소년 교류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워싱턴주 청소년 17명이 전북도에 방문해, 도내에서 선발한 10개 중·고등학교 13명이 교류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본 교류캠프에서는 한국의 역사 강좌, 한지 공예체험, 한국어·태권도 강좌, 한식 만들기 체험, 홈스테이, 도내 주요명소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양국 청소년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도내 청소년들이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도내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전북도와 워싱턴주 양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상호간 민간교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며,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전북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며, 앞으로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